

外国語コンテスト入賞作

英語部門

第1位 My Funny Hobby

08J1323 Tomoya Asai

Hello, everyone! Let me introduce my hobby today. To tell the truth, I'm interested in so many things. And I'll introduce a strange hobby from them today. My hobby is taking photographs.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say, "Taking photos? It's not strange at all." However, in fact, it is very strange. I always choose very funny things as objects to take pictures of. Those are not flowers, not birds, or not cars. You may be surprised. The object is THE SEWERHOLE COVERS, namely THE MANHOLE COVERS.

Needless to say, it means sewerholes that cover sewers. You might say that it's just a sewerhole cover, but it's not. Actually, it is very deep. I don't mean it has the depth, but I mean it is profound has a lot of meaning. You may think every sewerhole cover is the same. But surprisingly, there are more than 1,000 kinds of sewerhole covers in Japan. Some sewerhole covers are very fashionable. For example, this is a sewerhole in my town (Picture 1). My town, Gifu, is very famous for *ukai*, catching fish by ducks, so two cormorant feathers are drawn on the sewerhole covers. It's very nice, isn't it? Next, this is a sewerhole cover from Ogaki City, a neighboring city (Picture 2). Ogaki City attractions, that is Sumiyoshi lighthouse and Boat Town Port, are designed in the sewerhole covers. They have so elaborate designs. Finally, please let me introduce a sewerhole cover that attracted me and motivated me to fall into this hobby. That's it! (Picture 3). You can see this in Kurashiki, Okayama Prefecture. It looks very simple, but this is my favorite one. Only a tree is drawn in the cover, but it's very sophisticated. This is one of the examples of "Less is more."

Do you understand my hobby? Thus, each town has its original sewerhole covers. Each cover has a character and charm. Don't you think it is very interesting? You don't look at your feet when you walk, but from today, please keep your eye on sewerhole covers!

Pictures 1 - 3 は省略しました。

中国語部門

第1位 一次体验给我带来的变化

07C8022 中垣摩耶

大家好。

我是爱知大学现代中国学部三年级学生，我叫中垣摩耶。

今年暑假，我参加了北京的现地企业实习活动。下面谈一谈在北京的实习收获。

我所实习的公司是一家中国的中小企业。主要业务是销售飞机票。我所在的日本部，只有九名员工，但却是企业的中坚力量。

上任第一天，我就被工作现场的氛围惊呆了。电话接连不断，一手接座机，一手接手机，员工们忙个不停，简直像战场！我事先准备好的自我介绍，根本没派上用场，就被安排到工作岗位上了。到了岗位，发现自己的桌子上没有电话！派遣之前老师曾说，我的主要工作是接日本人的电话。可是……。

一连几天，我的工作就是写文书、确认企业的日语主页。有时也接日本人打来的电话。但是，绝大多数的电话来自中国人，并且多是打到同事那里的。“为什么我的工作台上没有电话？”我有些懊恼，回到宿舍一个人偷偷地流泪。

有一天，一个中国员工问我，“你最近怎么好象没精神？没问题？”我回答说，“没什么问题。”随后他说，“我们的公司最重视跟顾客交流。电话是第一步。来电话，即使再忙都要马上接。”

我开始意识到自己的问题！以自己汉语不好，桌子上没电话，自己是进修生为理由，不及时接电话，怠慢了工作！公司视自己为正式员工，而自己却没有意识到，为此感到十分惭愧。

说话时，一台电话响了，我连忙去接。“喂，你好，这里是日本部。”当然对方说的是汉语，并且说得很快，我听不懂。正想转给同事接，对方突然说起日语。之后得知，这位顾客是一位会说日语的中国老客户。如果自己不去接这个电话，怎么会知道这位顾客能说日语？。

从这一天起，不管哪个桌子上的电话响，我都马上去接。并且用日语，用不流利的汉语，完成了三项预定发售机票的任务。同时，还积极主动给自己找活干。

北京两周的实习，锻炼了自己。使我充分认识到，什么事情都不要轻言放弃，要勇于挑战。现在我正在找工作，对我来说这是未知的世界。但现在的我，不再畏惧任何可能出现的困难，有信心勇于面对一切！

韓国・朝鮮語部門

第1位 나의 大學生活과 韓國語

06M3506 小笠原由子

경영학부 4학년 오가사와라 유코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올해로 대학교 생활 네번째 겨울을 맞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년이란 눈 깜짝할 사이이고, 많은 추억이나 소중한 친구가 생긴 반면, 졸업해야 하는 것이 조금 섭섭해요.

한국어와의 만남은 물론 쓰네이시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쓰네이시 선생님이 한국에 관해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한국어를 술술 말할 수 있게 돼서 한국에 유학하는 것이 목표가 됐어요.

실제로는 장기 유학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1 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대학교에 다닌 것, 소중한 친구가 생긴 것, 한국이 더욱더욱 좋아진 것,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많이 생겼어요.

한 선생님과 한국어 수업에서는 더욱 발전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회화하는 즐거움이나 말 못하는 분함,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에 빠르말, 혼자서는 못 하는 여러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업의 중간중간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한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올해는 나에게 있어 보람있는 일년이 됐어요.

특히 6월에 제 모교 교육 실습에 간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아 있어요.

실습기간 중은 과제의 많음에 고민하면서 잠도 아껴 가면서 수업안을 만들었어요.

실습 기록을 쓰면서 부활동 지도를 하면서 바쁜 매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실습은 아주 힘들었지만 학생들은 아주 귀여웠고, 선생님들께는 바쁘면서도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추억을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어가 아주 좋아요. 여기에 있는 누구 보다도 한국어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졸업하면 한국어를 접하는 기회는

적어지겠죠.

하지만 제가 배운 4년은 평생 안 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4년동안 학습할 수 있었고, 즐거운 대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쓰네이시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선생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장소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日本語部門

第1位 日本で得た教訓

09M3274 楊 銀愛

皆さんはヨーロッパ人というのを一番先に思い浮かべますか。金髪で青い目、白い顔が一番強いイメージではないでしょうか。黒髪で茶色の目の私たちとははっきりと異なる外見です。でもみなさんは自分がアジア人であることで侮辱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か。

私は運が悪いと言うか、不幸にもそんな目にあってしまいました。

その日、学校が終わって自転車で家に帰るところでした。道路の横に大きい柿の木があり、上には拳ぐらいの柿の実がずずなりになっていました。寒いところで有名な中国の東北から来た私は、柿の木を初めて見たので、自然とその下に立ち止まってぼかと眺めていました。

そのとき、どこから出て来たのか、おじさんがそんな私を見つけて「おい、お前何だ!」

びっくりして見たら機嫌が悪そうなおじさんがいて、私は「あ、あ、なんでもないです。」と言いながらそこから立ち去ろうとすると「お前、外人だろう、中国?韓国?これ取っちゃ駄目だよ、最近外人は本当に...駄目だよ!!」と私の心に傷をつけました。まるで私とその柿を取ろうとしたみたい。「違います、違います。」と首と手を振りながら言いましたが、まだまだ足りない日本語のせい、おじさんはそんな私を無視して行ってしまいました。

瞬間、耐えられない悲しみと悔しさで、急いで自転車に乗りましたが、風と共にとめどなく涙が流れていきました。

でも、この話はそれで終わりではなかったんで

す。何日か経ち、いつもと同じ家に帰るところで思わず自転車を止めてしまいました。なぜなら、あのおじいさんがまたあの柿の木のところからです。そして、もう一人の人に「これ食べてみて、すごくあまいよ。外国にきて苦労だね。」と言いながらその大きくて、おいしそうな柿を二つ取って手に渡しました。想像もできなかった世界一優しい顔で。前とは全然違う態度で驚きました。しかし、私が見たその柿を渡した相手は金髪で青い目のヨーロッパ人だったんです。「こういうことか。」私はやっと前日のことを完全に「納得」し、全てをまとめて「人種差別」という寂しくて、冷たい結論を出しました。

人種差別をはじめ、様々な差別は一人の人の心に忘れられない傷を残します。これが私が日本で得た教訓です。意識的、無意識的にかかわらず、差別というものは私たちの心に住みついています。こういう差別を無くしていく上で、自分自身の行動を振り返る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が、それだけでなく、皮膚の色や血という概念に基づいて、人々を分類するという考えが、社会的、歴史的に創ら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